

OpenDoors

12

2022

VOL.248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북한선교현장

- 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18)"

박해와 선교현장

- 카타르(QATAR)

현장 소식

- 이라크, "카람레스(Karamles)의 이전과 이후"

현장 스토리1

- 시리아, "잊혀진 이들을 위한 만찬식당"

현장 스토리2

- 이라크, "평화의 라디오 소리"

희망의 선물

- 베트남, "희망의 우물프로젝트"

Ch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OpenDoors
이웃 사랑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We are people of Bible

김경복 선교사
(오픈도어 사무총장)

코로나 팬데믹이 서서히 진정되고 있을 무렵, 지난 5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국제오픈도어 글로벌 포럼이 있었다. 본부는 오픈도어에 막 합류한 나에게 화란 본부에 먼저 올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실로 오랜만에 그리운 요한 컴패년(Johan Compañen) 전 총재를 만나게 되었다. 서로 포옹하고, 안부를 묻고 테이블에 앉았다. 오픈도어의 지나 온 일들을 회상하던 그는 포켓에서 조그만 손때 묻은 성경을 꺼내 들었다.

“오픈도어 사역자들이 명심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다. 핑계로 성경 읽는 일을 소홀히 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브라더 앤드류가 항상 힘있고, 영감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브라더 앤드류는 늘 포켓에 성경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행중에도 잠만 나면 성경을 읽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포켓에 성경을 지니고 틈만 나면 성경을 읽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창립자 브라더 앤드류(Anne van der Bijl, 1928-2022년)는 지난 9월27일 향년 94세로 주님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11월18일 그를 기념하는 예배가 오픈도어 사역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열렸다. 저마다 기억속에 머물러 있는 그의 발자취를 끄집어 내며 그를 기억했다. 요한 컴패년은 이 자리에서 또 포켓 성경을 꺼내 들었다. 그만큼 이 시대 우리에게 간절하게 요구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이 되자! Read the Bible, to live the Bible, and be the Bible.”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자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듣는다. 그런데 성경이 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가 걸어 다니는 성경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알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을 때 중국가정교회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다.

감사하게도 필자는 중국의 가정교회 1세대 목회자들-광주우의 사무엘 램(Samuel Lamb, 林獻羔, 1925-2013년), 씨아먼의 양심페이(楊心斐, 1928-2011년), 북경의 위앤씨앙천(袁相忱, 1914-2005년), 후아이난의 왕형제-을 만나는 축복이 있었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성경 그 자체라는 강한 인상을 느끼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20 여 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석방 후 중국 광조우에서 따마잔 교회를 개척한 사무엘 램 목사님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의 삶으로 보여 주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중국공안의 회유와 협박을 당하고 수감생활을 반복했는데,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축복을 주셨다고 간증하곤 했다. 오픈도어는 그를 통해서 중국에 20만권의 성경을 전달할 수 있었다.

사무엘 램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것은 성경전달을 통해서였다.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필자는 오래전에 중국으로 성경전달 여행을 많이 다녔다. 홍콩에서 성경을 전달받고, 중국에 성경이 필요한 지역으로 배달하는 일이다. 해관을 통과해야 하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이동해야 했다.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성경책이지만 중국가정교회 성도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값진 것이었기에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번은 우리 성경전달팀이 성경을 전달하고, 따마잔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을 때 중국 공안이 들이 닥쳤다. 막무가내로 강단에서 있는 사무엘 램목사님을 끌어 내리고, 뒷문으로 나갔다. 성도들은 일삼적이듯 아무도 동요하지 않았다. 한 성도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를 선창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을 하며, 기도를 시작했다. 혹시 한국인들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탄로나서 더 큰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는 고개를 꼭 눌러 숙이며, 숨을 죽이고 사태를 관망했다. 얼마 후 교회 지도자 중 한 분이 강단으로 올라오셨고, 이날 모임을 마무리 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사무엘 램목사님은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미소를 띄우며 일상처럼 말씀을 계속 전하셨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많은 가정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그들을 존경하며 따랐던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이 되는 삶의 본을 보았기 때문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딤후 3:12)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일상에서 성경적 삶을 살아냈다. 그 삶이 바로 성경 그 자체가 되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 새해에도 여전히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는 계속될 것이다.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공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오픈도어 가족들의 일상의 삶속에서도 성경대로 살아 성경 그 자체가 되는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기도한다.

OPENDOORS 7가지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CONTENTS

- 04 북한선교현장
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18)"
- 07 박해와 선교현장
카타르(QATAR)
- 14 현장 소식 이라크
"카람레스(Karamles)의 이전과 이후"
- 18 현장스토리 01
시리아, "잊혀진 이들을 위한 만찬식당"
- 20 현장스토리 02
이라크, "평화의 라디오 소리"
- 22 Heart To Heart
베트남, "희망의 우물프로젝트"
- 23 희망의 선물
- 24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2022년 12월호 | 통권 248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사
사무총장 _김경복 선교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오현정, 문민한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김셋별

<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양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 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 (18)

탈북 여정에 대한 회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마리아 자매

다시 한번 탈북을 결행했던 그 날을 회상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해보는다. 탈북하는 그 길을 걷는 동안 몇 번의 위기 상황이 있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간신히 모면할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나의 여정은 열핏 우연히 시작된 것 같지만, 이내 오랜 세월 동안 북한 땅에서 탕자 같이 살던 나를 찾으시고 이끄신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된다. 그 누구도,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그 위험천만한 어둠 속에서,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 낯선 땅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명확하고도 넘치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나는 명식이와 함께 경비대원의 인도를 따라 북한 측 철조망을 통과하여 북한 땅을 벗어나는 데에 성공하였다. 철조망을 넘어서 그곳은 지정된 군인들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었다. 조금 걸어 들어가자 발 밑에 강물이 느껴졌다. 익숙한 경험이었다. 몇 년 전에 탈북할 때도 이렇게 강물을 건넌 적이 있었다. 그때는 옷이 다 물에 젖어 걸어가기가 힘들었다. 이번에는 신발과 바지를 벗어서 명식이 배낭에 넣었다.



<중국 국경 지대 철조망에 설치된 못침들>

그 친구 손목을 잡고 물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처음 한발을 디뎠는데 갑자기 땅이 훅 꺼지면서 배꼽까지 물이 차올랐다. 너무 놀라서 비명이 나올 뻔했다. 말 그대로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후회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눈을 질끈 감고 한 발자국씩 앞으로 천천히 나아갔다. 생각보다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금방 물이 머리까지 잠겨버렸다. 너무 놀란 나머지 명식이 오른쪽 어깨를 필사적으로 붙잡았고 중심을 못 잡던 명식이라도 휘청대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 손을 뿌리쳤다. 서러움과 공포가 밀려왔다.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여 물장구를 쳤으나 거센 물살을 이길 힘이 없었다. 명식이가 “누나, 내 손 좀 잡아줘요”라며 소리치는데 그 목소리가 이미 너무 멀리 느껴졌다.



<중국 국경 지역에서 바라본 북한의 모습>

있는 힘을 다해 손발을 휘젓는데 어느 순간 몸에 힘이 다 풀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해졌다. “아, 이렇게 죽는 것인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발 밑에 돌이 느껴졌고 발을 디딜 수 있게 되었다. 물살에 이끌려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물살이 나를 강 저편으로 떠밀었던 것이다. 구사일생이었다. 다리를 움직여 물 밖으로 나와 옷에 있는 물을 짜냈다.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 일만 남았다.

밤은 어두웠고 날씨는 얼 것처럼 추웠으며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피곤할 겨를도 없이 중국 쪽 철조망을 향해서 뛰었다. 얼마 안 되어 저 멀리서 변방대 차가 보였다. 순찰 시간이었다. 저 멀리서부터 조명을 밝게 비추어 우리 근처까지 국경을 살살이 뒤졌다. 명식이와 나는 땅에 엎드려서 숨죽이고 기다렸다. 다행히도 변방대 차는 우리를 발견하지 못한 채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얼마나 걸어 들어갔을까. 눈앞에 중국 측 철조망이 보였다. 북한의 그것보다 훨씬 높고 단단해보였다. 명식이는 남자라 그런지 2미터가 넘는 그 철조망을 훌쩍 넘어갔지만 나는 그 철조망을 넘느라 애를 먹었다. 철사가 살을 파고들어 이곳저곳이 찢기고 피가 났지만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아프다는 생각이 안 들었다. 철조망을 뛰어내리자 이제는 마침내 중국 땅이었다.

철조망에서 뛰어내린 그 자리에서부터 정처 없이 앞을 보고 뛰다가 걷다가를 반복했다. 곧이어 집 몇 채가 보였다. 조금 더 다가가자 마당에 있던 개들이 우리 둘을 보고 인정사정없이 짖었는데 마치 “너네 누구야”하고 소리 지르는 것만 같았다. 빨리 그 곳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이제 갈 곳이 없었다. 한 쪽은 철조망으로 가는 길이었고 다른 한 쪽은 낭떠러지처럼 보였다. 조금 더 걷자 과수밭 아래 불이 켜져 있는 집이 보였다.

과수밭을 헤치고 그 집 문 앞으로 걸어갔다. 문을 두드렸더니 어떤 시골남자가 문을 열어주었다. 우리는 문이 열리자마자 염치 불구하고 그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 사람은 아

마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탈북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방에 들어가서 마른 옷 한 더미를 가지고 나와서 갈아입으라고 하였다. 알고 보니 그 시골남자는 명식이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고, 밀수를 하던 파트너였다. 알지도 못하고 두드렸으나 제대로 찾아왔던 것이다. 소경 문고리잡기라는 말처럼 참 놀라운 우연이자 감사의 제목이었다.

부엌 아궁이 앞에서 몸을 녹이는 와중에 그 남자는 간단하게 밥을 차려주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과수원 수확을 위해서 인력들이 올 터이니 눈에 띄지 않게 몸을 피하라고 일러주면서 오십 미터 정도 떨어진 빈 집에 가 있으라고 하였다. 우리는 밥을 먹고 그 빈 집으로 걸어가서 미리 준비되어있는 이불을 깔았다. 명식이는 피곤했는지 코를 골면서 잤지만 나는 긴장해서 한참을 뒤척였다.

날이 밝자 어느 순간부터 오토바이 소리와 사람 소리가 웅성 웅성 들렸고, 조금 지난 후에 아까 그 남자가 와서 밖으로 나가도 된다고 일러주었다. 그 남자는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라며 전화를 주었다. 나는 예전에 중국에서 생활했을 때 있었던 지역에 전화하여 나의 탈북 소식을 알렸으나 지인들이 이곳으로 올 수는 없었고 내가 알아서 가야했다. 명식이는 친척 아는 분께 전화를 하더니 나보고 함께 가자고 했지만 왠지 이쯤에서 각자 헤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거절했다. 명식이는 곧 출발했고 나는 탈북 후 처음 홀로 남았다.

그 시골남자는 이 지역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보름 후에야 도와줄 수 있다고 하였다. 갑작스럽게 탈북을 하여 돈도 음식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왔기에 별다른 방도가 없었다. 나는 그 집에서 라면, 소시지 등 먹을 것을 이것저것 얻어다가 혼자 산으로 들어갔다. 민가에서 조금 떨어진 산 속에 임시 움막 같은 것이 있었다. 문도 없고 천정도 없는 공간이었지만 그곳에 있으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다. 얼마 안 되는 짐을 내려놓고 움막에 들어가 누웠다.

밤이 되자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썩은 나뭇가지가 내 머리 위로 툭툭 떨어졌고 커다란 산쥐들이 움막 안팎으로 들락날락 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중국 쪽에는 집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북한에서 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았다. 북한과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곳이었기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다. 중국에 온 것만 해도 심장이 뛰는 일인데 혼자서 그 긴 밤을 지새우는 것이 참 무섭고 고통스러웠다.



<북중 국경의 노후 철조망을 새로운 철조망으로 교체하는 중국 인부들 (KBS NEWS)>

그 때 하나님을 많이 찾았던 것 같다.

그 후 보름 정도 그 움막에서 지냈다. 배가 고프면 낮에 마른 삭정이를 주워다가 불을 때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근처 다른 집 밭에 나는 작물들을 서리해서 먹었다. 목이 마르면 근처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 먹었다. 낮에는 움막 안에 있으면 짐승이 오는지 사람이 오는지 알 길이 없어 길이 잘 보이는 소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있었다. 시골이라 평소에는 조용했지만 변방대 차가 다니는 소리가 하루에 수시로 들렸다. 보름이라는 시간 하루하루가 나에게서는 백일처럼 느껴졌다. 힘들 때마다 예전에 즐겨 불렀던 곡 “바위섬”을 불렀다.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혼자서 부르니 더욱 구슬픈 노래가 되어버렸지만 그 노래를 부르면서 힘든 마음을 달랬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가을걷이를 다 마친 그 시골남자가 내가 있는 움막에 올라와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려가자고 했다. 아침부터 과일박스를 운반하기 위한 차들이 그 집 앞에 줄지어 서있었다. 그 브로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때, 마침 국경 변방대 경찰들이 지역 순찰로 들이닥쳤고, 나는 사람들 몰래 공지에 쌓여있는 과일박스 사이에 숨어들어갔다. 경찰들은 중국인들의 신분증을 다 검사한 후 돌아갔다. 나는 시골남자의 말대로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한 뒤 운반차 뒷자리에 숨었다. 이렇게 숨어도 국경 변방대 초소를 지날 때 검열에 걸리면 끝이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나는 다른 지역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과일이 실린 트럭을 타고 도착한 그 도시에는 시골남자의 가정집이 있었다. 거기서 며칠간 신세를 지게 되었다. 아들도 있고 아내도 있는 집이었다. 남의 집에 얹혀있는 내 모습이 참 처량할 뿐더러, 이렇게 가족과 동떨어져서 혼자 모험을 하는 내가 가여워 보였지만 그렇게 감상에 젖어있을 틈이 없었다. 그 시골 남자는 원래 브로커 일을 하던 사람이라 나의 이름과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한국 브로커들과 공유하며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었다. 그렇게 연결된 한국행 브로커는 나에게 어디까지 오라고 지시해주었다. 그런데 사실 이제는 더 이상 낯선 땅에서 혼자 위험하게 이동하는 모험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돈을 더 주더라도 내가 있는 지역까지 데리러 와달라고 하였다.

며칠 후 내가 있는 곳까지 한국행 브로커들이 찾아왔다. 이 사람들을 따라 밤새 장거리 버스를 두 번 갈아타며 또 다른 지역에 도착했다. 이 여정은 가도가도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

졌으나 빨리 끝나라라는 기대는 이미 버린 지 오래였고, 다만 안전한 곳으로 탈없이 도착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나를 맞이한 브로커 아줌마는 북한 여자였다. 이국 땅에서 동향 사람을 만나니 반가움이 밀려왔다. 내가 온 후로 또 곧이어 몇 명이 도착했다. 나처럼 탈북을 하고 월경을 하려는 사람이 과연 꽤 되었다. 그 와중에 함께 탈북했던 명식이가 생각났고, 한 국에 갈거면 너도 여기로 오라고 연락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찾아왔다. 중국말도 모르는 명식이가 그 넓은 중국 땅을 가로질러 여기까지 냉큼 찾아온 것이 신기했다.

며칠 후 8-9명 정도의 인원이 한 팀을 이루어 출발 준비를 하였다. 브로커의 지시를 따라 함께 길을 떠날 채비를 하던 도중, 출발 직전에 갑자기 나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다. 그 동안 약했던 부위에 출혈이 심하게 일어나서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다. 중국인 신분증이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중국 병원에서 물품들을 구해다가 집에서 간단하게나마 링거를 꽂고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먼저 꾸려진 팀을 보내고 또 다시 그 다음 팀이 형성되기까지 약 한 달 좀 안되게 기다려야 했다. 며칠동안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오고, 점점 새로운 팀이 꾸려졌다. 같은 팀에 태어난 지 7개월 밖에 안된 아기도 있었다.

새로운 팀을 꾸리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다. 북한을 탈출하여 안전하게 중국 땅을 밟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불법체류자로서 중국에서 탈출하여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가는 일도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오늘도 그 때를 떠올리며 한낱 인간으로서 한치 앞 길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지마는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한다.



카타르(Qatar)



폭력과 압력의 수준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박해지수 총합은 100점이다 (16.7 X 6개 영역 = 100).

주목할 만한 점 (Key findings)

카타르의 기독교인들은 주로 해외국적의 외국인 거주자들이며,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가난한 삶과 일터의 업무 환경은 비록 신앙과 관련된 것이 주된 이유는 아닐지라도 차별로 인하여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것은 카타르 내의 수천명의 기독교인들에게 악영향을 준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소수의 사람들은 이들 외국인 기독교인들과는 다른 형태의 기독교 집단을 형성한다. 이들 개

종자들은 무슬림 가족과 사회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극심한 압력을 받는다. 이슬람에서 타종교로의 개종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문제 및 지위 상실, 양육권 상실, 재산 몰수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토착민과 이민자 기독교 개종자들 모두 차별, 학대와 경찰의 감시의 위험을 감수한다.



국가 정보

국가 지도자:

에미르 타미 빈 하마드 알-타니
(Emir Tamim bin Hamad al-Thani) 국왕

인구: 2,840,000 명

기독교인 수: 372,000 명 (13.1%)

주요종교: 이슬람교

정부형태: 절대군주제



카타르의 상황

주요 종교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인	372,000	13.11
이슬람교	2,266,000	79.8
힌두교	86,100	3.0
불가지론자	60,000	2.1

카타르는 한때 가난했지만 1940년대 이후 유전과 천연가스의 개발로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 카타르는 알-타니(al-Thani) 가문이 통치하는 절대군주제 국가이다. 카타르는 역사상 처음으로, 30명이 선출되고, 15명이 임명되는 새로운 슈라 평의회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는 부족 노선을 통해 조직되었고, 그 결과 잘 알려진 사업가들과 전직 정부 관료들이 선출되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권 개혁 반대 등 헌법의 주요 이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는 국가 재정을 충분히 분배하면서, 아랍의 봄(2010년 12월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에 발생한 전례 없는 반정부 시위 및 혁명 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이 지역의 특징이 되고 있는 사회, 경제적 불만의 많은 부분을 크게 해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지만 카타르의 경제적 부는 이슬람 무장단체와 조직들, 특히, 대체로 사우디아라비아로 대표되는 이웃국가들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무슬림 형제단을 지원하면서, 아랍의 봄 기간 동안 해외에서 이들 무장세력들의 적극적인 폭

력활동을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아랍의 봄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며, 반정부 세력의 지도자들과 반군들의 대변인 역할을 한 알-자지라 미디어 네트워크(Al-Jazeera media network)를 카타르가 주도했다는 것이다.

카타르 기독교인의 존재는 석유와 가스 산업의 개발과 함께 성장해왔다. 해외국적의 외국인 거주자 기독교인들은 제한된 수준의 종교적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카타르 최초의 교회인 도하(Doha) 밖의 엄격히 감시되는 '종교 단지'에 세워지게 된 것은 2007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카타르 정부는 기독교를 외세의 영향력으로 간주하며, 외교부를 통해 자국내 교회를 규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독교 공동체에 어느 정도 자유를 주는 것이 카타르에 가장 이익이 된다는 점을 수용하고 있다.

지역별로 다양한 박해 상황

카타르는 아주 작은 나라이고, 수도 도하(Doha)가 모든 활동의 중심지이다. 기독교인들이, 특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직면하는 위험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따라 달라진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현지인 기독교 개종자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압력을 받기 때문에 가장 많은 박해를 견뎌내고 있는 부류의 기독교 공동체이다. 반면, 기독교로 개종한 외국인 개종자들은 대체로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나 같은 민족 공동체와 함께 살기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에서와 비슷한 압력을 경험한다.

박해를 받는 기독교 공동체들

외국인 교회 공동체(Communities of expatriate Christians)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온 노동자들은 그들의 종교와 상관 없이 나쁜 대우를 받는다. 만일 이들 아시아/아프리카 출신 노동자들이 크리스천이라면, 이들은 박해에 더욱 취약해질 것이며, 무슬림으로 개종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존재하는 교회 장소에 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과 카타르 정부의 예배 장소 확장 거부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배를 참석할 수 없고 신앙생활을 원활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배를 위해 주거 공간을 사용하는 것 또한 어려워지고 있다.

역사적 전통이 있는 교회 공동체(Historical Christian communities)

역사적 전통이 있는 교회 공동체는 외국인 교회 공동체에 포함된다.

기독교 개종자들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Converts to Christianity)

이슬람 배경을 가진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한다. 아랍 부족주의의 상황 속에서 개종은 믿음을 배반하는 것뿐 아니라, 가족, 혈족, 아랍인으로서의 인종적-민족적 정체성마저도 배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배교자는 카타르 내에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자로 간주되고, 기독교 개종자들은 사회로부터 차별과 괴롭힘을 당하며 심지어 살해당하기도 한다. 토착민 개종자들과 외국인 개종자들 모두 가족 구성원과 고용주와 지역사회 공동체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는 극심한 압력을 겪는다.

비-전통적 기독교 교회 공동체들(Non-traditional Christian communities)

비-전통적 기독교 교회 공동체 역시 외국인 교회 공동체에 포함된다.



박해와 차별의 주된 요인

이슬람의 압박:

카타르 정부의 정책과 문화는 와하비 이슬람(Wahhabism: 코란으로 돌아가자는 사우디아라비아 가중심이 된 수니파 이슬람 운동)과 샤리아법(Sharia law)의 엄격한 준수로 결정된다. 따라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경제적 지원, 가족의 안전, 그리고 법적인 보호를 상실할 위험이 있는 2류시민으로 분류된다.

혈족에 의한 탄압:

부족주의는 여전히 카타르에서 큰 역할을 한다. 종교와 가족의 정체성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슬람을 떠나는 것은 자신의 가족을 배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가족들은 개종한 가족이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강한 사회적 압박을 가한다. 많은 경우, 개종자들은 가족들로부터 소외되고 따돌림을 당한다.

독재정권:

카타르는 절대군주제 국가이고 국왕(Emir)이 다스린다. 정부가 카타르 국민을 위해 많은 재정적 혜택과 함께 복지국가를 만들었지만, 정부는 이를 대가로 복종을 기대하며 어떤 정치적 반대도 허락하지 않는다. 정부는 특히 외국인 거주자 수에 비해 적은 자국민 인구 수 때문에 카타르를 확실한 이슬람 국가로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외국인 기독교인들의 경우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비교적 자유롭기는 하지만, 그들의 모든 활동은 정부에 의해 감시된다. 카타르는 경찰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외국인들의 경우 쉽게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 박해의 차이

여성

와하비(Wahhabi) 이슬람의 문화적 해석과 샤리아(Sharia) 법으로 인한 여성 권리에 대한 규제는 여성들을 취약하게 만든다. 여성들의 개종 사실이 드러나면, 여성 개종자들은 배척당하고, 가택 연금을 비롯해 모든 연락 및 소통 수단이 차단되는 위험을 겪게 된다. 여성들은 심한 구타를 당하거나 가정에서 추방되거나 소위 '명예' 살인을 당할 수도 있다. 카타르 개종자들은 법적으로 비-무슬림과의 결혼이 금지되며, 교정 조치로 무슬림에게 강제 결혼을 강요당한다. 카타르 내에서 일하는 가정부 대다수는 기독교인이며, 이들은 빈번하게 성적 학대를 당하거나 노예 취급을 받는다.

- 납치
- 지역사회 공동체/네트워크 접근 거부
- 자녀 양육권 박탈
- 기독교인 배우자와 결혼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박탈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강제 퇴거-추방
- 가족에 의한 감금/가택연금
- 여행금지/이동제한
- 사망에 이르는 폭력
- 신체적 폭력
- 성적 폭력
- 언어적 폭력

남성

이슬람이 아닌 종교적에 대한 공식적 표현 금지 외에도, 기독교인들은 자기 검열을 통해 저자세를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남성들은 사회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며 정부 관료들과 관계하는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남성 기독교인들이 대중적 감시

를 받는 것은 일반적이다. 개종한 남성 기독교인들은 또한 가족들로부터 압박의 위협을 감수한다. 기독교 신앙이 드러나면, 가족들은 아내와 자녀들을 해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 남성 기독교인들이 고립되는 것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남성들은 기독교 공동체와의 교류를 단절당하기도 하고 직업을 잃기도 한다. 더 나아가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경험하며 가족들에게 추방당할 수도 있다.

- 지역사회 공동체/네트워크 접근 거부
- 상속 또는 소유권 박탈
- 직장/구직/사업 영역에서의 경제적 괴롭힘
- 부당한 벌금 부과
- 강제 퇴거-추방
- 정부에 의한 투옥
- 신체적 폭력
- 정신적 폭력

최근 5년간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및 박해지수 동향

년도	월드와치리스트 박해순위	박해지수
2022	18	73.85
2021	29	67.39
2020	27	66.30
2019	38	62.12
2018	27	63.42

시리아는 WWL 2022에서 박해지수 77.58포인트로 15위를 기록했다. 2021년보다 순위가 3계단 내려갔다. 박해 수준은 대체로 2021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폭력박해 지수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보고된 폭력사건의 수는 전년도보다 더 적었다. 예를 들어,



WWL 2021에서는 기독교인 사망자 수가 9명이었지만, WWL 2022에서는 한 명도 없었다. 또한 WWL 2022에서는 강제결혼에 대한 보고가 있었지만 WWL 2022에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반면, 교회와 기독교 공동묘지에 대한 공격 건수와 체포된 기독교인의 수는 증가하였다.

기독교인들을 향한 폭력 박해의 사례들

와하비(Wahhabi) 이슬람의 문화적 해석과 샤리아(Sharia) 법으로 인한 여성 권리에 대한 규제는 여성들을 취약하게 만든다. 여성들의 개종 사실이 드러나면, 여성 개종자들은 배척당하고, 가택 연금을 비롯해 모든 연락 및 소통 수단이 차단되는 위험을 겪게 된다. 여성들은 심한 구타를 당하거나 가정에서 추방되거나 소위 '명예' 살인을 당할 수도 있다. 카타르 개종자들은 법적으로 비-무슬림과의 결혼이 금지되며, 교정 조치로 무슬림에게 강제 결혼을 강요당한다. 카타르 내에서 일하는 가정부 대다수는 기독교인이며, 이들은 빈번하게 성적 학대를 당하거나 노예 취급을 받는다.

- 2022년 WWL 보고에 따르면, 빌라에서 모이는 가정 교회 공동체는 코로나19 조치 완화 후, 모임 재개를 위한 허가를 받지 못했다. 카타르 내 유일한 종교 단지 안에 충분한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교회 공간 부족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모스크와 쇼핑몰은 다시 문을 열었지만 수천명의 외국인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거부당했다.

를 받지 못했다. 카타르 내 유일한 종교 단지 안에 충분한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교회 공간 부족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모스크와 쇼핑몰은 다시 문을 열었지만 수천명의 외국인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거부당했다.

- 2022 WWL 보고에 따르면, 외국인 기독교인이 개종 혐의로 심문을 받고 추방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보안 문제로 인해 더 세부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
- 기독교인들을 향한 폭력 사건은 거의 보고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천명의 외국인 기독교인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 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보고서('All Work No Pay', 2019)에 따르면,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수천명의 이주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착취로 고통받고 있다. 초기 보고서('My Sleep is My Break', 2014)에서, 국제 엠네스티는 특히 대부분이 크리스천인 여성 이주 노동자들의 (성적)학대 사례를 강조했다.

WWL 년도	공격받거나 폐쇄된 교회나 기독교 건물 수	구금된 기독교인 수	강간당하거나 성적 학대를 당한 기독교인 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학대당한 기독교인 수
2022	100	1	10	10
2021	0	0	10	10

위 표는 월드와치리스트 조사기간 동안 보고된 사안 중 신앙을 이유로 발생한 폭력에 대한 일부 범주만 포함한다. 보고되지 않는 사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위 숫자들은 최소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사건의 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징적 숫자인 10, 100, 1000과 같이 표기하며, 실제로 발생한 사건 혹은 피해를 당한 기독교인의 수는 훨씬 더 많다. (년도 별 조사 기간은 2022년도 자료 기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이다.)

개인 영역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대한 사회적, 경제적, 법적인 압박이 기독교 신앙을 개인적으로 드러내는 것조차 어렵게 만든다. 공적인 장소에서 기독교를 드러내는 행동은 불법이다.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적 행동을 하는 것은 이슬람에 대한 비판이나, 개종 행위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심각한 법적 처벌을 야기하고 감옥에 투옥되거나 국가에서 추방될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드러냄으로써 이슬람에서 벗어나려는 행위는 공개적인 괴롭힘을 당하거나 경제활동의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특히 건설 노동자와 같은 외국인 단순 노동자의 경우 더욱 그렇다.

가정 영역

기독교 개종자들의 가정을 돌보고 유지하는 것은 높은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어렵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에 대



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카타르 정부는 결혼과 같은 기독교 의례를 인정하지 않는다. 기독교로 개종한 부모의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슬람 교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끝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샤리아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강제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동체 영역

카타르 사회는 이슬람 신앙의 근본주의적 해석인 와하비즘(Wahhabism)과 샤리아법에 의해 지배된다. 이처럼 지역사회와 카타르 당국은 이슬람에 반대하거나 '외국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 급속히 적대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외국인 기독교인들은 더 넓은 범위의 카타르 사회로부터 윤리와 종교적 차이들에 기반하는 차별과 학대를 당한다.

국가 영역

카타르 정부는 근본적으로 이슬람적이고 독재적이며, 헌법 체계는 샤리아법에 근간을 둔다. 따라서, 카타르 정부는 기독교 NGO단체들의 활동을 중단시키고 공적 공간에서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는지를 감시하며, 국가나 이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교회 영역

카타르 최초의 교회는 2008년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주로 동아시아와 필리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공동체의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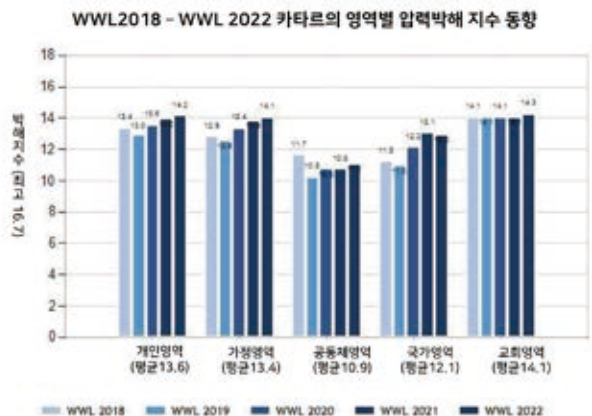
장을 위하여 조심스럽게 큰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무슬림 국가인 카타르에 기독교 건물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 많은 카타르 국민들이 반대하면서 카타르 교회의 시작은 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보안 순찰대는 기독교인들이 규정을 준수하고 평화를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모임을 위한 충분한 교회 공간이 부족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종교단지 내 빌라에서 예배모임을 갖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 5년간 평균 박해지수 동향

연도	5개 영역에 대한 평균 박해 지수 (16.7/만점)
2022	13.3
2021	13.2
2020	12.8
2019	12.2
2018	12.7

지난 5년간 기독교인에 대한 평균 박해지수는 매우 높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5개 항목 모두 12점 이상)

※ 5년간 영역별 압력박해 지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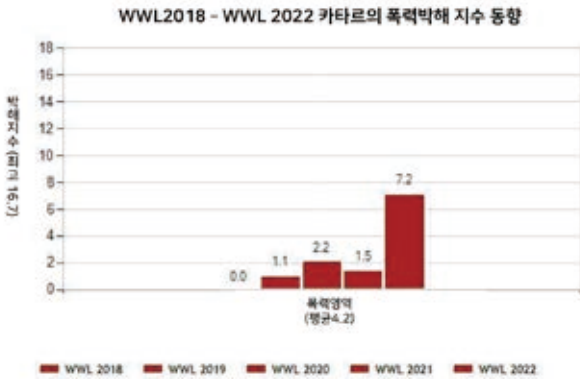


지난 4년 동안 교회 영역의 압력박해 지수는 극심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과 가정 영역의 압력박해 지수는 지난 3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극심함 수준에 도달했다.

※ 5년간 폭력박해 지수 동향

카타르에서 기록된 폭력사건의 수는 매년 크게 변하지 않았다. WWL 2018 ~ WWL 2021 동안 폭력 지수는 매우 낮음에서 낮음 수준에 머물렀다. 카타르는 거의 아무도 “금지된 경계선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매우 높

음 수준의 박해지수를 보이는 전형적인 걸프지역 국가이다. 2022년 월드와치리스트(WWL)는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된 뒤, 카타르의 많은 빌라 가정교회들이 교회 모임 재개를 위한 허가를 승인 받지 못하고 활동 중단을 강요 받은 후에 폭력지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다른 소수 종교들의 상황

카타르에서는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만이 법적으로 종교로 인정된다. 미국 국무부의 2020 국제 종교 자유보고서에 따르면, 수니파 무슬림과 시아파 무슬림과 8개의 기독교 교단만이 공식적인 종교단체로 등록되었다. 하지만, 상당한 규모의 외국인 힌두교 및 불교 공동체와 같은 다른 종교 공동체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종교 공동체들의 모임은 보편적으로 용인되며, 카타르 내에 몇몇 비공식적인 힌두교 사원들도 존재한다.

카타르의 오픈도어 선교회는...

오픈도어는 아라비아 반도의 크리스천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 후원을 일으키고 있다.



카람레스(Karamles)의 '이전'과 '이후'



< ISIS에 의해 마을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돌아온 이라크 기독교인들 >

카람레스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조직적으로 잘 구성된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하는 크리스천 인구가 지배적인 도시입니다. 수도 모술(니느웨) 동쪽으로 대략 15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며, 2014년 8월 IS 무장세력의 거센 진격으로 점령되어 약 3,000명의 인구가 도시를 떠났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쿠르드족 자치구의 수도인 에르빌(Erbil)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일부는 텐트에 거주하며, 또다른 사람들은 짓다 만 건물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카람레스 캠프'라고 불리는 지붕이 있는 건물 거주하고 있습니다.



'카람레스 캠프'는 원래 여러 아파트들이 중앙 마당을 공유하는 복합단지였습니다. 여러 가족들이 방, 주방과 화장실 및 위생시설을 함께 공유합니다. 여러 가정들이 함께 생활하게 된 요인은 이들 모두가 타벳트(Thabet) 목사가 섬기는 카람레스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 카람레스의 집 열쇠를 들고 있는 이크람(Ikram) 자매 >

열쇠 그리고 오래된 가족 사진 2016년, 당시

이크람(Ikram)은 한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크람, IS의 공격으로 이곳을 떠난 뒤로 지금까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은 받은 그녀는 녹슨 못이 박힌 벽에 걸려있는 열쇠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열쇠꾸러미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내 집에 다시 살 수 있다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크람 과샤(Ikram Qasha)는 2014년 8월, 하루 아침에 실향민이 되었습니다. 극단주의 이슬람 ISIS 군인들이 카람레스로 진격해왔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모든 것을 내버려둔 채 즉시 도망갔습니다. 자신들의 집을 다시 볼 수 있을 지도 모르는 채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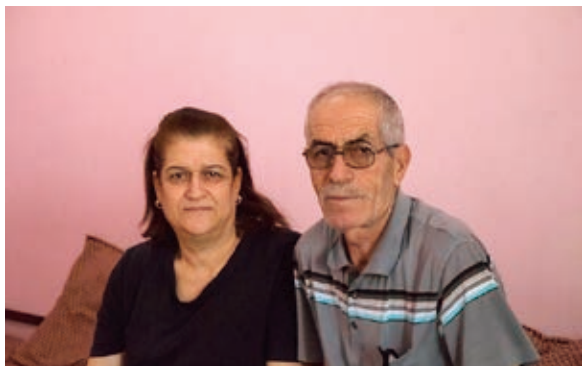
난민 생활 동안 이크람 가족은 에르빌(Erbil) 요새 근처의 짓다 만 건물의 작은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낮에 사용하는 소파가 밤에는 이크람의 침대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난민 생활을 하는동안 머물 곳을 마련해 주고 전해준 신 도우메 감사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 카람레스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나눠 주기도 했습니다.

이크람의 남편 살렘(Salem)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인지 묻자, 그는 전통의복을 갖춰입은 부모님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이 소중한 이유를 그는 **"이라크의 기독교 유산을 절대 잊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사진을 챙겨올 수 없었고 사진이 아직도 남



아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사진파일을 저장한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부모님 사진을 보여주는 살렘(Salem) >

2022년, 현재

난민으로 지내는 동안 이크람은 여러 손주들이 태어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3년 뒤, 이크람에게 또다른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카람레스가 ISIS로부터 독립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동안 소중히 보관하던 집 열쇠를 들고 카람레스에 있는 자신의 집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든 수리 공사가 이어졌고 현관 자물쇠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현재 다시 카람레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 그녀는 새로운 열쇠 꾸러미를 보여주며 모든 수리가 끝나고 자신의 집에 다시 살 수 있게 된 기쁨을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

“고향으로 돌아온 후 첫 해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과 교회의 도움으로 고향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고, 이 곳 고향에서의 삶이 짓다가 만 건물 속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가끔 과거의 친구들과 친척들을 기억하려고 마을의 오래된 지역들을 걷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떠났고 그들이 너무 그리웁습니다. **사랑하는 고향 마을로 돌아왔지만, 마을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인쇄된 사진들?

살렘 부모님의 사진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살렘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뿌듯해 했습니다.



이크람은 이러한 경험들이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성찰합니다. “에르빌을 다시 방문했을 때, 저희가 지냈던 건물 앞에 서서, 갈 곳 없는 저희에게 지난 3년 동안 이 건물에서 지낼 수 있게 도움을 주셨던 분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밝혀 주시도록 ISIS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수 에스테판(Estephan) 2016년, 당시

2016년 당시, 에스테판 이스마일(Estephan Ismail)은 ISIS로부터 해방된 후 카람레스로 돌아온 첫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에스테판은 그 중에서도 목공소를 다시 연 첫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ISIS 군인들에 의해 부서진 집의 모든 문들을 닫고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 2017년, 에스테판(Estephan)은 카람레스의 집 문들을 고치고 있다. >

“저는 열심히 일하며 어려움을 극복했고, 타벳(Thabet, 당시 교구 목회자)목사님이 요구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자원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인내하는 법을 배웠고 또 하나님께서는 늘 저희들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에스테판(Estephan)은 마가복음 8장 26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2022년, 현재

현재 55세인 에스테판은 마을 재건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카람레스 자치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치회 활동을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곳 상황에 적응해 가면서 긍정적으로 변했고 모든 것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 2022년 현재, 자신의 목공소에 있는 에스테판(Estephan) >

에스테판의 목공기술은 다른 마을주민들에게 여전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수리되었고 최근에 그는 가구 만드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내 마리아(Mary)가 준비해준 차를 마시며 그는 두 자녀들과 함께 겪었던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려봅니다.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전쟁의 위협을 피해 피난가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이라크의 수도 모술이 무너지고 ISIS의 위협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물과 전기가 모두 끊긴 끔찍한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에스테판은 마태복음 6장 26절을 기억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어 앓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을 굳세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과 연합됨을 느꼈고 전세계 모든 크리스천들이 저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난 중에 태어난 생명 2016년, 당시



< 2016년 내전 중에 태어나 18개월된 테레즈(Tereze)의 모습 >

테레즈의 부모는 ISIS가 카람레스를 점령하기 2주 전에 결혼했습니다.

- 결혼: 2014년 7월 22일
- 이주: 2014년 8월 6일 밤

에르빌(Erbil)로 피난을 떠난 것은 토마스(Thomas)와 나리만(Nariman)이 꿈꾸던 신혼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신혼부부는 '카람레스 캠프'에서 다른 가족들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토마스와 나리만은 곧, 자신들이 아이를 가진 것을 알았고 난민 생활 중이던 2015년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부부는 어머니(Teresa)의 이름을 따서 딸의 이름을 테레즈(Tereze)라고 지었습니다.

많은 이라크 크리스천들과 마찬가지로, 테레즈의 삼촌과 다른 친척들은 이라크를 나가 호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나리만 부부와 테레즈는 이라크에 남았고 고향땅 카람레스로 돌아왔습니다. 2014년과 비교하여, 대략 1/3의 마을 주민들이 카람레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2022년, 현재

테레즈는 현재 7살 소녀로 성장하여 카람레스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가족의 뿌리가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인 이라크 카람레스의 크리스천들과 계속 함께해 주세요. 시리아와 이라크를 위한 희망의 백만기도운동 캠페인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기도를 통해 시리아와 이라크 땅에 희망을 전해주세요~!

테레즈와 그녀의 남동생 토니(Tony),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들은 독립 후 시간이 흐른 뒤 카람레스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테레사와 그녀의 아버지 토마스의 이모도 테레즈 가족과 함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카람레스로 돌아가는 것이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테레즈의 아버지, 토마스는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가족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테레즈의 아버지는 농부로 일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높은 임대료와 비싼 물가로 인해 에르빌에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비싼 물가는 저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어떤 선택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에쉬(Daesh)를 떠나올 때 모든 농작물과 수입원을 잃었지만, 수입을 만들기 위해 다시 땅을 일구고 있습니다.”

ISIS가 몰락하거나, 이곳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토마스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 부모님과 조상들의 마을, 카람레스에서 살고 있는 7살 된 테레즈의 모습 >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곳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현장 스토리 01

잊혀진 이들을 위한 희망의 만찬식당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희망센터 사역을 통해 150명의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알-하와시(al-Hawash)지역의 나리만(Nariman) 자매는 어르신들에게 매주 두 번씩 맛있는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녀는 어르신들을 '잊혀진 이들'이라고 부릅니다. 오픈도어를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크리스천들의 도움으로 세워진 희망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은 맛있는 식사와 더불어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지원은 2011년 이전에는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2011년 당시 홈스(Homs) 지역에 살고 있었던 나리만은 "사람들은 충분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전혀 없었고, 당시 저희들 모두는 충분히 좋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라고 당시 시리아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납치되어 협박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나리만 부부는 알-하와시(홈스에서 서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시리아 도시)로 이주하여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부부의 수입은 홈스에서 벌던 수입의 6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의 납치와 이주민의 삶의 경험이 '만찬식탁'을 섬기게 된 계기이자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하는 나리만은, "저희는 괜찮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 알아요."라고 고백합니다.

희망의 만찬식당은 2018년 희망센터 중 한 곳인 마르 엘리아스 그리스 정교회(Mar Elias Greek Orthodox Church)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나리만은 나zek(Nazek)이라는 여성과 함께 만찬식당을 시작했습니다. 나리만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돌보지 않고 홀로 남겨진 어르신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어르신들께 제공되는 음식에는 다진 고기, 양파와 향신료를 포함한 많은 재료들로 가득 채운 고로케인 시리아 국가 전통 요리 키베(Kibbeh)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돌보지 않고 홀로 남겨진 어르신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나리만은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보기 힘든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시리아를 떠나 홀로 지내거나, 자녀들이 없는 어르신들입니다. 잊혀진 분들이죠...”

나리만의 말을 이으며 나젝 자매는 “만찬식당이 없으면, 이분들의 삶은 더욱 비참해질 거예요.”라며, “모든 음식은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데, 이를 통해 음식을 받는 어르신들과 음식을 배달하는 봉사자들 모두 아름다운 관계의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만찬식당은 여러 봉사자들이 교대로 섬기며 운영됩니다. 모든 봉사자들이 사람들을 돕는 일에 기쁨을 느끼며 즐겁게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나리만과 나젝 모두 최근 몇 년 동안 유방암으로 투병생활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절대 일을 하지 말고 안전을 취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어르신들을 섬길 때는 피곤함을 느끼거나 힘들지 않아요. 몸이 아프고 상황 어렵다고 이 사역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듯이, 이분들이 어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라고 나젝은 고백합니다.



< 어르신들의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만찬식당의 자원봉사자의 모습 >

기도해 주세요~!

- 하나님께서 만찬식당을 축복해주시고, 나리만과 나젝을 비롯해 만찬식당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격려하시고 보호해주시고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 만찬식당의 선구적인 사역이 더욱 성장하여 도움이 필요한 지역의 모든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시리아 땅에 다시 평화와 안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MAKE HOPE LAST : 희망의 백만기도 캠페인



- 희망의 백만기도운동 캠페인에 동참하셔서 시리아와 이라크를 위한 기도로 전세계를 밝혀주세요.
- 희망의 백만기도 캠페인 사이트[www.makehopelast.org]에 접속하시거나, 큐알코드 스캔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스토리2

평화의 라디오 소리

조그마한 라디오 방송국이 이라크 전역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천명의 크리스천들을 위한 회복의 소리가 되어 이라크 전역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교회는 카라코쉬(Qaraqosh)지역에서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소리'라는의미의 '사우트 알 살람'이라고 불리는 라디오 방송국은 이라크 전역과 중동지역의 15만 명의 크리스천들을 주 대상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더욱 친밀해지도록 돕고 있으며, 다른 이라크인들과 소수민족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는 역할 또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배구장 옆 교회의 문화센터 근처에 위치한 방송국에는 10명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은 2003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방송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송국 디렉터인 세브(Saeb)는 다양한 사무실과 음향장비를 비롯해, 마이크와 책상들로 채워진 넓은 스튜디오로 구성된 방송국을 소개합니다. 그는 라디오 방송 청취자는 택시운전사부터 학생, 청소부, 전업주부까지 다양하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방송국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한 방송 송출을 새롭게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간단합니다. 정치적 요소나 분쟁적 요소 없이, 교회, 기독교와 크리스천의 삶에 관한 이야기들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면, 자녀양육이나 기독교음악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교회에서 진행되는 문화행사에 대한 소식들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메시지

이라크 모술 북부의 한 마을 셰칸(Shekhan)에서 온 실바(Silva)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기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일을 했지만, 오픈도어가 현지 파트너를 통해 진행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뒤로, '평화의 라디오 소리' 방송 기사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오픈도어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미디어와 교회의 관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많은 기술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를 공부한 적이 없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2007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탈출한 실바는 '평화의 라디오소리' 방송국에서 하는 일을 사랑합니다. 실바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저의 재능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셰칸(Shekhan) 지역의 이라크 교회를 전세계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숫자가 모이지는 않지만, 저희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쁜 일입니다."

크리스천들을 교회 공동체로 이끄는 라디오 방송

실바는 오늘도 가즈완(Ghazwane) 목사와 지역 크리스천들이 손을 직접 쓴 성경에 대한 라디오 방송 기사 인터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합니다. 가즈완 목사는 향기로운 차와 따뜻한

미소로 실바를 환대하며 실바 자매가 늘 교회의 사역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새로운 소식을 듣고자 교회를 찾고 있다고 전합니다.

가즈완 목사님과 티타임을 마친 실바는 휴대폰 어플로 작동되는 녹음기를 준비하고 손으로 쓴 교회의 특별한 성경에 대해 목사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쓴 성경을 보여주며 열정으로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즈완 목사님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인터뷰를 진행하던 실바는 “미디어는 교회가 많은 활동들을 진행해 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진행하신 이번 성경 제작 활동은 미디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키고 격려하였습니다.”라며 교회의 성경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실바는 특정 청취자 그룹, 다시 말해서 명목상 크리스천으로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함께 모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이 많은 크리스천들을 교회 공동체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요함과 평화를 심는 라디오 사역

라디오 방송국이 교회를 내부적으로 결속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라크 내에서 교회의 사회적 위치를 굳건하게 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고 전하는 디렉터 세브(Saeb)는 말합니다. “라디오 프로그램들은 이라크인들이 갈망하는 고요함을 제공합니다. 이는 전쟁과 정치적 논쟁에 관한 끊임없는 뉴스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청취자들이 크리스천인 것은 아니며, 사실 대다수의 청취자들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우리 라디오 주파수는 에르빌(Erbil)과 모술(Mosul)까지 송출되며, 인터넷을 통해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은 중동 남부 국가들의 청취자들에게도 전달됩니다.”

‘평화의 라디오 소리’ 방송은 무슬림들에게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세브는 “한번은 저희 방송국 페이스북에 부정적인 악플이 달리자, 많은 무슬림 청취자들이 댓글을 통해 라디오 방송 사역을 옹호하며 대응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평화를 말하고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어떤 이유도 없으며 저희 방송 사역을 지지해 주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평화와 올바른 이해 만들기

세브는 무슬림 청취자들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세브는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사랑과 평화를 만들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누구인지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무슬림들과 다른 비기독교인들은 크리스천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에 대한 오해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무슬림들이 경멸하는 파티와 술 취하기를 크리스천들은 즐거한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전쟁과 종파간 갈등, 그리고 박해로 찢겨진 나라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를 바로잡는 것의 핵심은 평화를 향한 여정입니다. 세브는 전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크리스천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을 보여주며 증오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은 많은 인식의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청취자들이 전화를 통해 기독교와 크리스천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빨간 불이 들어오자, 세브는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자신의 입술 위에 얹습니다. ‘평화의 라디오 소리’ 방송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라크 전역을 비롯한 중동 전역의 청취자들이 라디오 볼륨을 높입니다. 교회의 목소리가 다시 크게 울려 퍼져 이라크와 중동 전역으로 뻗어 나갑니다.



새롭게 태어난 '평화의 라디오 소리'

세브 감독에게 라디오 방송국은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2014년, ISIS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카라코시(Qaraqosh)를 점령하면서 카라코시를 떠났고 자신의 방송국은 완전히 파괴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IS로부터 해방된 뒤, 그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방송국이었습니다. 세브는 말합니다. "파괴된 방송국에 돌아가서, 촛불을 켜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느꼈습니다."

IS는 방송국의 모든 전자 장비들을 훔쳐갔고 방송국을 폐허로 만들었지만, 방송국 건물만큼은 남아 있었습니다. 오픈도어는 현지 파트너를 통해, 라디오 방송국에 필요한 가구와 장비들을 지원하였습니다.



'평화의 라디오 소리' 방송 사역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 주세요.

희망의 백만기도운 캠페인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이라크와 중동 전역에 예수그리스도의 희망과 평강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의 선물 캠페인

<오픈도어의 희망의 우물 프로젝트> 박해를 환대와 감사로 변화시킨 희망의 우물

한 해의 절반 이상이 비가 내리지 않는 베트남 중부지역 고원지대 마을에 오픈도어의 "희망의 우물"이 설치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뭄으로 농산물 재배는 물론 여름철 샤워조차 할 수 없었던 마을 주민들, 식수를 얻기 위해 매일 한시간 반을 걸어야 했던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의 우물"이 희망의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와 오픈도어의 동역을 통해 마을에 우물을 건설하고 물탱크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150-200명이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픈도어의 희망의 우물 프로젝트는 단순한 물부족 문제를 넘어 기독교 박해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마을 주민들과 지방당국은 지역의 위생

문제와 물부족 문제를 해결한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기독교 박해를 중단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베트남 우물 프로젝트는 현재 총 5개 우물이 설치되어 약 1000여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생명수가 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가 진행하는 베트남 희망의 우물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해받는 기독교 공동체를 총체적으로 섬기는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7,000~)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지원 40\$(50,000 ₩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전화(02-596-3171/010-7548-3171)또는 메일(odsk@opendoors.or.kr)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주소:		-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위 표를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보내실 곳 : 010-7548-3171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1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	전화번호	
출금계좌번호	은행		주소		
출금액	10,000원	출금일선택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출금동의 서명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010-7548-3171)

*직접 이체하실 경우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9301-04-167093 (한국오픈도어선교회)